



수원시 노인복지정책의 진단과 방향성 고찰

요약

□ 수원시 노인인구 현황

- 수원시는 2011년 노인인구 기준이 7.2%(78,587명)를 초과하여 고령화사회로 진입
- 노인인구는 2023년 6월 기준 152,003명, 2030년 236,633명(19.8%), 2035년 289,657명(24.2%), 2040년 337,679명(2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원시는 2031년경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 역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연소노인(만 65~74세)이 60.5%(91,938명)로 가장 많음
- 구별로는 권선구 노인인구가 48,593명으로 가장 많고 인구 대비 비율은 팔달구가 16.0%(30,908명)로 가장 높음
- 행정동 중 지동(27.5%), 행궁동(26.4%), 연무동(24.0%), 영화동(23.3%)은 고령화율이 20%를 초과한데 반해 광교1동(6.2%), 영통2동(5.7%), 망포2동(5.2%)은 7% 미만으로 나타나 행정동별 고령화율 격차가 큼
- 2022년 말 기준 취약계층노인 중 장애와 노화를 이중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노인의 비중은 등록장애인의 46.4%(20,438명)를 차지하고, 화서1동(31.7%), 정자1동(31.8%), 지동(34.3%), 조원2동(47.3%)은 독거노인 비율이 30%를 초과

□ 수원시 노인복지정책 관련 예산 현황

- 수원시 복지여성국 2022년도 예산 중 노인 관련 예산은 32.0%(369,477백만원) 차지, 그 중 98.3%가 국가와 광역 자치단체에 의한 보조사업
- 자체사업 중 시설 및 단체지원을 통한 사업비가 70.3%를 차지

□ 수원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

- 지역(구 및 행정동)별 특성 및 연령집단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
- 사각지대 노인(장애노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정책 확대
- 특례시로서의 노인복지정책 비전 설정 및 지역형 특화사업 확대
-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 패러다임)을 반영한 통합적 관점의 정책 개발

[1] 수원시 노인인구 현황¹⁾

□ 노인인구 현황 및 전망

- 수원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2011년 78,587명에서 2023년 6월 말 152,003명 까지 증가
- 수원시는 2011년 노인인구 비중이 7.2%를 초과하여 고령화사회로 진입
- 수원시의 노인인구 비중은 2025년 15.0%(179,443명), 2030년 19.8%(236,633명), 2035년 24.2%(289,657명), 2040년 28.3%(337,679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전국, 경기도, 수원시의 노인인구 추이> ^(2011.12.31.-2023.06.30)

(단위: 명, %)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전국	5,700,972	6,775,101	8,496,077	8,851,033	9,267,290	9,492,582
	(11.2)	(13.1)	(16.4)	(17.1)	(18.0)	(18.5)
경기도	1,072,462	1,318,882	1,775,315	1,881,464	1,992,807	2,056,079
	(9.0)	(10.5)	(13.2)	(13.9)	(14.7)	(15.1)
수원시	78,587	99,750	131,936	139,075	147,122	152,003
	(7.2)	(8.4)	(11.1)	(11.7)	(12.4)	(12.8)

<수원시 장래 노인인구 추계> ^(2025년~2040년)

(단위: 명, %)

구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구 수	1,200,095	1,196,392	1,196,745	1,191,201
노인	인구 수	179,443	236,633	289,657
	비율	(15.0)	(19.8)	(24.2)

| 자료 : e지방지표 장래인구추계

- 전국과 경기도의 고령사회 도달연수²⁾는 각 17년, 15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수원시는 14년 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수원시의 영유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베이비붐(1955년~1974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있어 수원시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

<전국 및 경기도 고령화 사회 진입년도>

(단위: 명, %)

구분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인구	고령화율	진입년도	인구	고령화율	진입년도
전국	3,355,614	(7.0)	2000년	7,356,106	(14.2)	2017년
경기도	755,511	(7.1)	2005년	1,992,807	(14.7)	2020년
수원시	78,587	(7.2)	2011년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2) 국제연합(UN)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함

□ 타 지자체와의 비교

- 2023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노인인구의 비율은 12.8%로 화성시(10.0%), 시흥시(11.1%), 오산시(11.4%)에 이어 경기도에서 하위 네 번째 수준
- 노인인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양시가 168,12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용인시(161,277명), 수원시(152,003명) 등의 순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노인인구 현황> (2023.06.30.)

(단위: 명, %)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			인구 90만 이상 지역		
구분	인구 수	비율	구분	인구 수	비율	구분	인구 수	비율
연천군	12,654	(30.2)	화성시	93,105	(10.0)	성남시	148,688	(16.1)
가평군	18,253	(29.5)	시흥시	57,395	(11.1)	고양시	168,125	(15.6)
양평군	35,464	(28.8)	오산시	26,026	(11.4)	용인시	161,277	(15.0)
여주시	28,024	(24.6)	수원시	152,003	(12.8)	수원시	152,003	(12.8)
포천시	33,872	(23.5)	평택시	75,383	(12.9)	화성시	93,105	(10.0)

□ 노인 집단별 인구 현황

- 노인의 연령을 뉴가르튼(Neugarten)이 정의한 3개의 세부집단으로 구분하면, 현재 수원시는 연소노인(만 65세~74세)의 비중이 60.5%로 가장 높음
-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연소노인(만 65세 이상~74세 이하)과 초고령노인(만 85세 이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수원시 노인인구의 세부집단 비중> (2023.06.30.)

(단위: 명, %)

구분	계		연소노인 (만 65~74세)		중고령노인 (만 75~84세)		초고령노인 (만 85세 이상)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2018년	117,256	(100.0)	68,141	(58.1)	38,352	(32.7)	10,763	(9.2)
2019년	123,647	(100.0)	72,306	(58.5)	39,652	(32.1)	11,689	(9.5)
2020년	131,936	(100.0)	78,470	(59.5)	40,674	(30.8)	12,792	(9.7)
2021년	139,075	(100.0)	83,640	(60.1)	41,939	(30.2)	13,496	(9.7)
2022년	147,122	(100.0)	88,800	(60.4)	44,153	(30.0)	14,169	(9.6)
2023년 6월 말	152,003	(100.0)	91,938	(60.5)	45,356	(29.8)	14,709	(9.7)

[2] 수원시 4개 구 및 행정동별 노인인구 현황³⁾

□ 4개 구별 현황

- 수원시 4개 구(區) 중에서는 권선구의 노인인구가 48,593명으로 가장 많음
⇒ 권선구(48,593명), 장안구(41,280명), 영통구(31,222명), 팔달구(30,908명)의 순
- 총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팔달구가 1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장안구(15.3%), 권선구(13.2%), 영통구(8.6%)의 순

<수원시 구별 노인인구> (2023.06.30.)

(단위: 명, %)

구분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노인 인구 수	152,003	41,280	48,593	30,908	31,222
총 인구 대비 비율	(12.8)	(15.3)	(13.2)	(16.0)	(8.6)

□ 행정동 고령화율 현황

- 수원시 44개 행정동 중 지동(27.5%), 행궁동(26.4%), 연무동(24.0%), 영화동(23.3%)의 고령화율은 20% 초과
- 영통구의 광고1동(6.2%)과 영통2동(5.7%), 망포2동(5.2%)은 고령화율이 7% 미만
⇒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동(27.5%)과 가장 낮은 망포2동(5.2%)은 5배 이상 격차

<수원시 행정동별 고령화율> (2023.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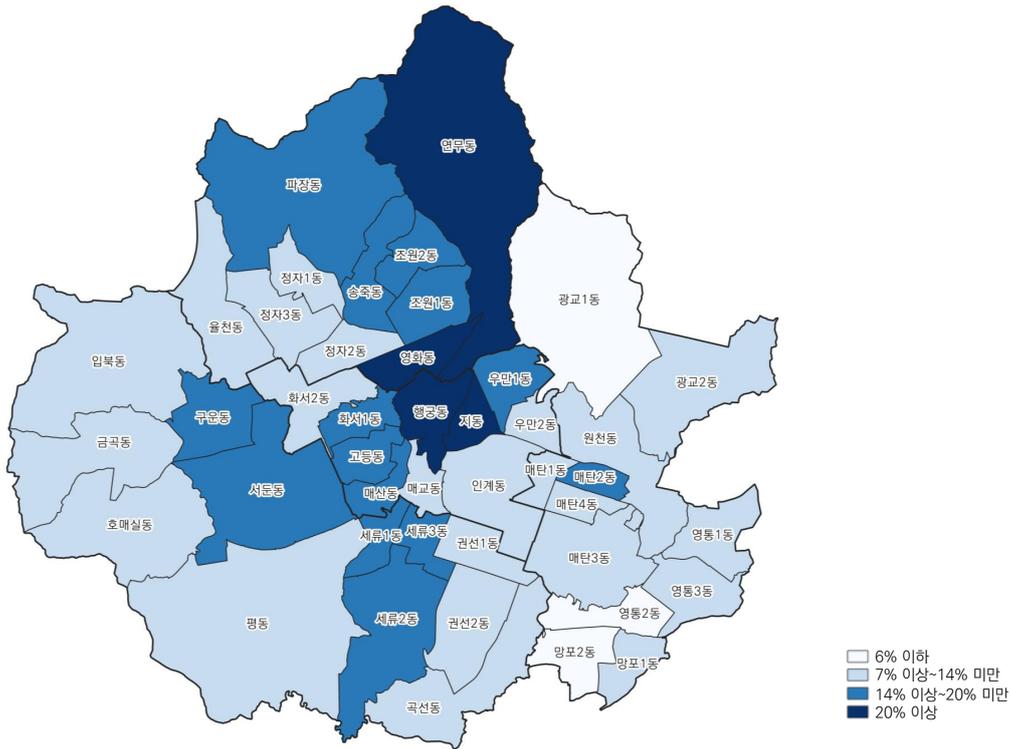
(단위: %)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송죽동	16.9	곡선동	7.9	고등동	15.9	광고1동	6.2
연무동	24	구운동	16.8	매교동	10.2	광고2동	11
영화동	23.3	권선1동	12.7	매산동	19.5	망포1동	7.4
울천동	11.4	권선2동	10.1	우만1동	19.7	망포2동	5.2
정자1동	13.9	금곡동	11.9	우만2동	12.7	매탄1동	13.8
정자2동	14.1	서둔동	16.5	인계동	12.6	매탄2동	15.6
정자3동	8.8	세류1동	16.4	지동	27.5	매탄3동	9.5
조원1동	18.1	세류2동	18.3	행궁동	26.4	매탄4동	13.6
조원2동	16.4	세류3동	19.9	화서1동	19.1	영통1동	8.6
파장동	19.1	입북동	12.7	화서2동	13	영통2동	5.7
		평동	14.9			영통3동	7.5
		호매실동	10			원천동	9.5

| 주: 고령화율이 20% 이상인 행정동은 진한색으로 표시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수원시 행정동별 고령화율> (2023.06.30.)



□ 노인 세부집단별 현황

- 연소노인(만 65세 이상~74세 이하)은 서둔동(3,811명), 평동(3,803명), 권선2동(3,230명)의 순
- 중고령노인(만 75세 이상~84세 이하)은 서둔동(1,910명), 평동(1,755명), 정자2동(1,721명)의 순
- 초고령노인(만 85세 이상)은 평동(617명), 조원1동(566명), 정자2동(533명), 금곡동(521명), 서둔동(504명) 등의 순

<수원시 행정별 노인인구 세부집단 현황> (2023.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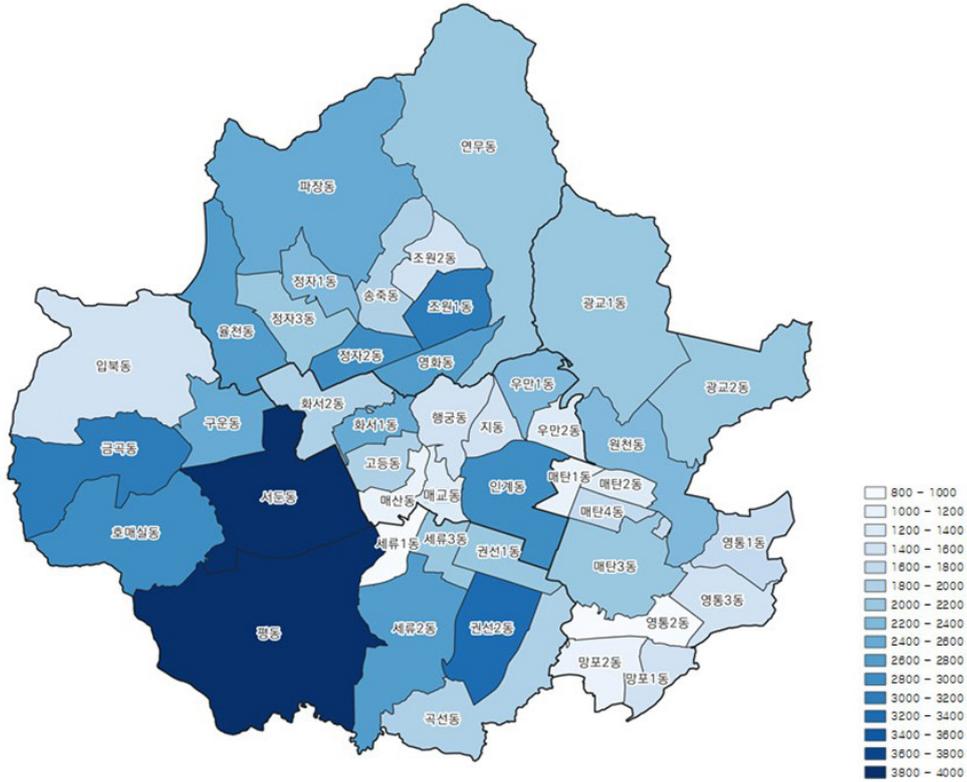
(단위: 명)

연소노인(만 65~74세)		중고령노인(만 75~84세)		초고령노인(만 85세 이상)	
권선2동	3,230	금곡동	1,622	금곡동	521
금곡동	3,145	서둔동	1,910	서둔동	504
서둔동	3,811	영화동	1,364	연무동	439
영화동	2,739	울천동	1,382	울천동	491
울천동	2,786	인계동	1,456	인계동	486
인계동	2,972	정자2동	1,721	정자2동	533
정자2동	2,878	조원1동	1,677	조원1동	566
조원1동	3,001	파장동	1,323	조원2동	474
평동	3,803	평동	1,755	파장동	435
호매실동	2,839	화서1동	1,307	평동	617

| 주 : 세부집단별 상위 10개 행정동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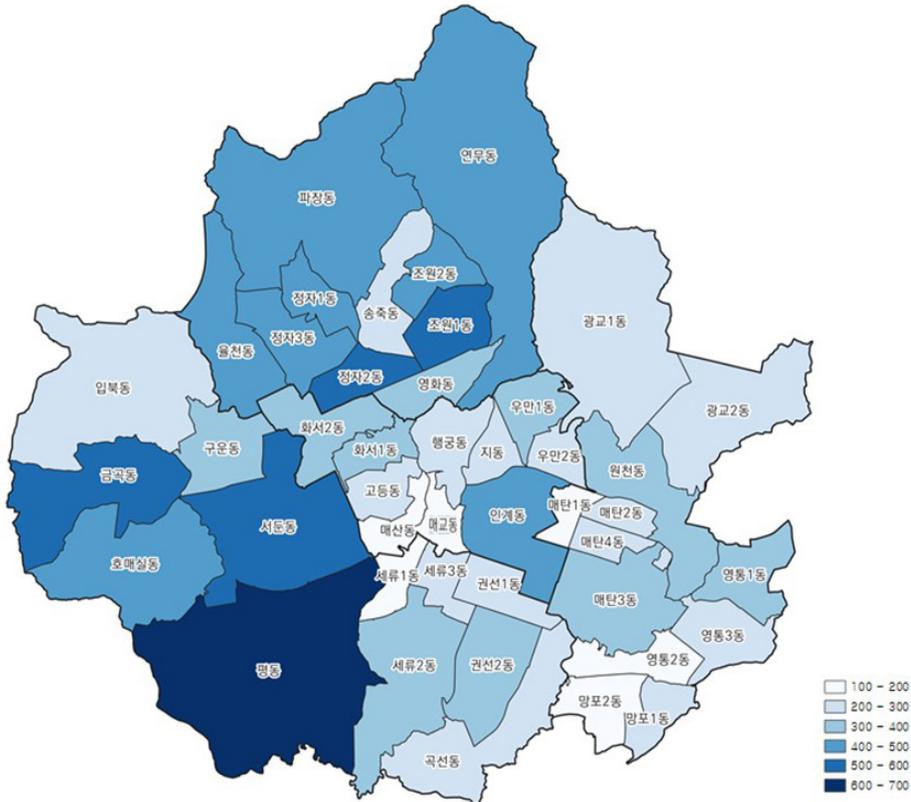
<수원시 행정동별 연소노인(만 65세 이상~75세 미만) 분포 현황>

(단위: 명)



<수원시 행정동별 초고령노인(만 85세 이상) 분포 현황>

(단위: 명)



[3] 취약계층 노인 현황

□ 장애인 현황⁴⁾

- 2008년과 2022년 수원시 등록장애인은 35,570명에서 44,033명으로 8,463명(23.8%) 증가
- 2022년 12월 말 기준, 수원시 등록장애인(44,033명) 중 장애와 노화를 이중적으로 경험하는 장애인 노인의 비중은 46.4%로 나타나 장애인의 고령화속도가 더 빠름
 ⇒ 장애인노인의 비중은 29.5%^(2008년)에서 46.4%^(2022년)까지 증가

<수원시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영유아 (만 0~5세)	아동청소년 (만 6~18세)	청년 (만 19~34세)	중장년 (만 35~64세)	노인 (만 65세 이상)
2008년	35,570	204	1,628	3,478	19,759	10,501
2022년	44,033	208	1,702	3,363	18,322	20,438

| 주 :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2008년)와 최근 자료^(2022년) 비교
 | 자료 : 보건복지부⁽²⁰⁰⁹⁾. 장애인 등록 현황^(2008년), 보건복지부⁽²⁰²³⁾.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 독거노인 현황

- 44개 행정동 중 조원2동(47.3%), 지동(34.3%), 정자1동(31.8%), 화서1동(31.7%)은 독거노인 비율이 30%를 초과
- 영통3동(8.1%), 곡선동(7.3%), 영통2동(5.5%), 광고1동(4.7%)은 10% 미만

<수원시 독거노인 현황>^(202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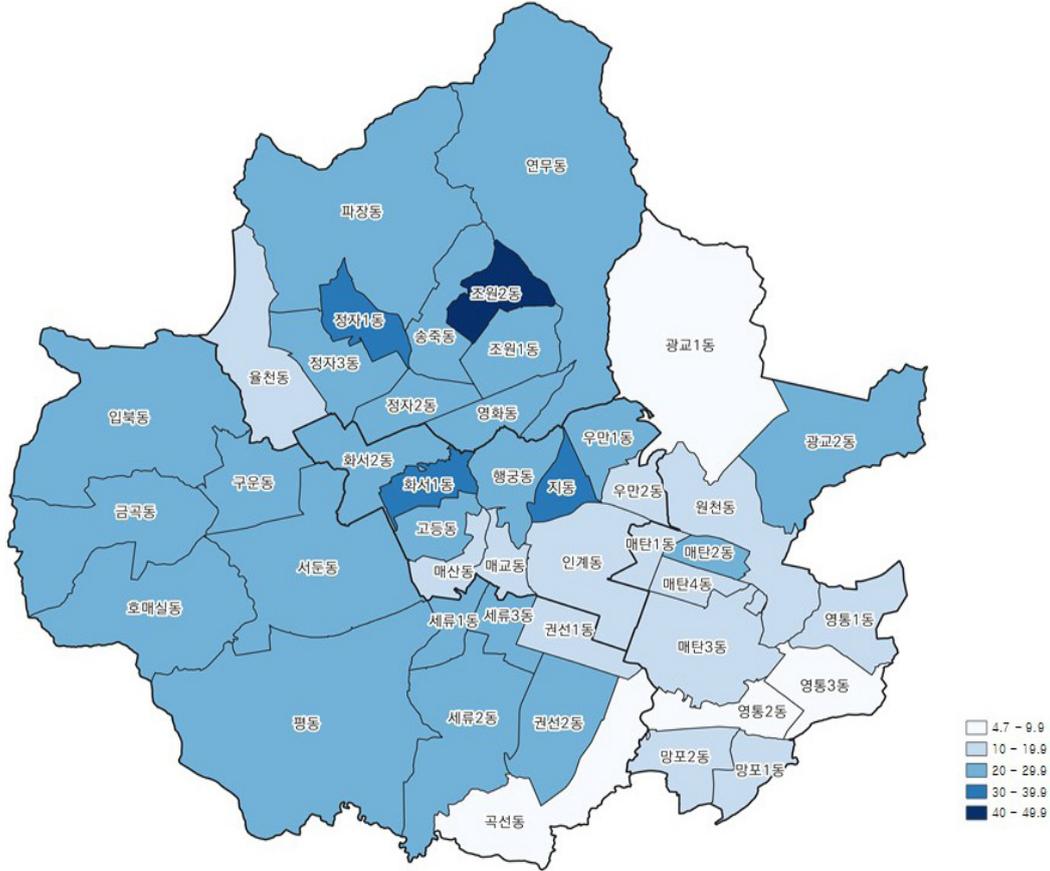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송죽동	24.90%	곡선동	7.30%	고등동	23.10%	광고1동	4.70%
연무동	27.10%	구운동	23.20%	매교동	15.90%	광고2동	22.20%
영화동	27.80%	권선1동	10.50%	매산동	17.10%	망포1동	15.90%
울천동	10.30%	권선2동	20.10%	우만1동	26.30%	망포2동	13.00%
정자1동	31.80%	금곡동	24.20%	우만2동	13.70%	매탄1동	19.90%
정자2동	28.60%	서둔동	21.70%	인계동	10.00%	매탄2동	22.40%
정자3동	21.10%	세류1동	23.80%	지동	34.30%	매탄3동	10.40%
조원1동	29.20%	세류2동	20.30%	행궁동	26.60%	매탄4동	19.20%
조원2동	47.30%	세류3동	24.00%	화서1동	31.70%	영통1동	19.40%
파장동	29.00%	입북동	20.50%	화서2동	24.80%	영통2동	5.50%
		평동	26.40%			영통3동	8.10%
		호매실동	25.90%			원천동	11.60%

| 자료 : 허경재·박관아(2023). 수원시 1인가구 특성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4)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장애인노인에 대해 규정된 개념은 없지만 장애를 가진 노인을 장애인노인으로 통용하여 사용(이준우 외, 2012)

<수원시 행정동별 독거 노인 분포 현황>

(단위: %)



[4] 수원시 노인복지정책 현황⁵⁾

□ 노인 관련 정책 예산

-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 중 사회복지 기능 관련 예산은 1,164,489백만원으로 45.3% 수준
-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매칭비를 받는 보조사업은 93% 차지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기능 예산(본예산)>

(단위: 백만원, %)

2022년 본예산	사회복지(기능) (c=a+b)	정책사업			비사업(b)
		총계(a)	보조사업	자체사업	
2,571,761	1,164,489	1,156,302	1,075,533	80,769	8,186
(100.0)	(45.3)	(99.3)	(93.0)	(7.0)	(0.7)

| 주 1 : 정책사업의 총계(a)의 비율은 C 대비 비율을 의미하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총계(a)대비 비율을 의미

| 주 2 : 보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 자체사업은 100% 시비사업을 의미

5)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e호조에서 추출한 내용이며, 복지여성국 내 관련 내용임

-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 관련 예산은 369,477백만원으로 복지여성국의 32.0% 수준
- 수원시비로만 운영되는 자체사업은 6,237백만원으로 1.7% 수준
 - ⇒ 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자 기준이 지침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호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한계 존재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별 예산현황> ^(2023.06.30)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구 수		예산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계	1,191,988	(100.0)	1,156,302*	(100.0)	1,075,533	(93.0)	80,769	(7.0)
영유아(만 0~5세)	43,283	(3.6)	311,928	(27.0)	300,101	(96.2)	11,827	(3.8)
아동청소년(만 6~18세)	142,923	(12.0)	134,465	(11.6)	117,005	(87.0)	17,460	(13.0)
청년(만 19~34세)	287,014	(24.1)	20,490	(1.8)	17,784	(86.8)	2,706	(13.2)
중장년(만 35~64세)	566,765	(47.5)	1,437	(0.1)	366	(25.5)	1,071	(74.5)
노인(만 65세 이상)	152,003	(12.8)	369,477	(32.0)	363,240	(98.3)	6,237	(1.7)

| 주 : 복지여성국에서 노인 관련 예산만 추출

| * : 생애주기+비생애주기 값의 합. 아래의 개별 값은 비생애주기를 제외한 생애주기만을 표기

□ 서비스 제공 형태

- 보조사업은 현금성 급여, 자체사업은 시설 및 단체지원의 비중이 높음
 - ⇒ 보조사업은 기초연금 등과 같은 현금성 급여로 인하여 현물급여 제공 비중이 높음
 - ⇒ 시설 및 단체지원은 주로 경로당이나 복지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해당
 - ⇒ 현금성 급여와 시설 및 단체지원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체감도가 낮음

<2022년 수원시 노인 관련 정책의 서비스 제공 형태>

(단위: 백만원, %)

구분	서비스 제공형태						
	계	현금	현물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
계	369,477	304,214	1,602	13	27,433	70	36,145
	(100.0)	(82.4)	(0.4)	(0.0)	(7.4)	(0.0)	(9.8)
보조사업	363,240	303,555	1,245	0	26,680	0	31,760
	(100.0)	(83.6)	(0.3)	(0.0)	(7.3)	(0.0)	(8.8)
자체사업	6,237	659	357	13	753	70	4,385
	(100.0)	(10.6)	(5.7)	(0.2)	(12.1)	(1.1)	(70.3)

| 주 : 기회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사업은 사업비만 교부하는 경우를 의미

- 자체사업 중 80세 이상의 노인복지정책은 효사랑지원금과 효도수당이 유일

<수원시 노인복지정책 중 80세 이상 노인 대상 정책>

구분	효사랑지원금	효도수당
지원대상	만 85세 이상 수원시 1년 이상 거주하며 기초연금 미수급자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이 함께하는 가구 중 수원시 5년 이상 거주 중인 가구
지원내용	분기별 60,000원 현금 지원	반기별 50,000원 현금 지원

| 자료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 자체사업의 서비스 영역

- 서비스 영역의 전달체계도 여전히 단체나 시설 등을 통한 정책에 집중
 - ⇒ 안전과 관련해서는 독거노인에게 유제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정책 시행
 - ⇒ 문화 및 여가와 관련해서는 경로행사나 노인회, 문화교실 등 여가서비스가 주를 이룸
 - ⇒ 지역사회 내 환경변화와 관련해서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모니터단 사업이 유일함
 - ⇒ 수원시 자체적인 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 수원시 4개 구 지회를 통한 사업임

<2022년 수원시 노인복지정책의 서비스 영역별 자체사업 예시>

구분	자체사업
안전	독거노인 유제품 전달, 홀몸어르신 안부 확인, 독거노인 보호, 노인학대보호
문화 및 여가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 경로행사, 노인문화교실 운영, 노인지도자 대회
환경조성	고령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건강	뇌건강교실 물품(인지로봇), 무료노인복지시설 간병
일자리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 주 : 자체사업에서 서비스 영역별로 구분

[5] 해외사례를 통한 노인복지정책⁶⁾

□ 일본

-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2009년 「개호보수법」을 개정하면서 노인의 직접적인 삶과 관련되는 주거와 복지, 의료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함
- 2011년 「고령자거주안정확보에 따른 법령」을 개정하여 노인이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 주택을 확대함
- ‘내 집에서 나이들기(AIP) 패러다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고려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함
 - ⇒ 범죄로부터의 보호, 쾌적한 생활환경,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마을만들기 등

6) 이모작뉴스(<http://www.emozak.co.kr/2021.06.17>.) 및 강은나 외(2014). 초저출산 · 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 사회와 노인복지 서비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본 오사카시의 경우, 노인들을 위하여 생활지원서비스, 여가·문화·교육활동, 건강관리, 권리옹호, 자원봉사 및 취업지원 운영 등의 사업 시행
 - ⇒ 생활지원서비스(배회 치매고령자 위치정보탐색 시스템, 쓰레기 수거서비스, 침구세탁 건조소독 서비스, 긴급통보 시스템, 개호용품 지급, 식사서비스)
 - ⇒ 여가활동(노인클럽, 이키이키 에이징센터 등)
 - ⇒ 자원봉사 및 취업지원(실버볼런티어센터, 실버인재센터, 고령자취업센터)
- 일본은 고령자에 한정된 정책뿐만 아니라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시행
-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의 방향성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⁷⁾으로 고령자가 자택에서 30분 이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의료, 방문간호 등)를 지원

□ 독일

- 독일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잠재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노인상에 대한 발전·안착을 지향
- 독일은 노인주거시설 대신 노인이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지역사회와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시도
 - ⇒ 이웃 간의 돌봄을 토대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주거
 - ⇒ 노년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노인 대상 범죄 보호 프로그램 실시
 - ⇒ 부정적인 노인상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노인의 잠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 운동 시행

□ 미국 뉴욕⁸⁾

- 뉴욕은 2007년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장 먼저 가입한 도시로 뉴욕의과대학과 뉴욕시가 함께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Age-Friendly NYC) 추진
- 건강한 노인과 건강한 도시를 위하여 주택,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건강과 사회서비스, 공공공간과 교통의 영역의 전략과제를 제시
 - ⇒ 주택영역에서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적정비용의 주거개발,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지원을 위한 전략 과제 제시
 - ⇒ 지역사회와 시민참여영역에서는 고용과 경제적 안정, 자원봉사, 문화 및 여가활동, 정보와 계획과 관련된 전략과제 제시
 - ⇒ 건강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취약노인을 위한 지원, 건강 및 건강관리 계획, 영양지원, 부양 및 장기요양, 죽음준비와 관련된 전략과제 제시
 - ⇒ 공공공간과 교통의 영역에서는 이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교통수단, 안전하고 고령친화적인 공공공간, 미래계획과 관련된 전략과제 제시

7)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추어 고령자가 가능한 한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에서 잔존능력을 활용하면서 자립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 개호, 개호예방, 주거 및 일상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된 서비스 제공체계"를 의미함

8) 문정화 외(2020). 고양시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정책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6] 수원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

□ 지역(구 및 행정동)별 특성 및 연령집단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

-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을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정책을 설계·시행하였으나 노인이란 하더라도 연령대에 따른 특성과 욕구는 상이
- 수원시는 그동안 일률·단편적으로 시행했던 노인복지정책에서 벗어나 구와 행정동별 고령화 격차를 해소하고 연령에 따른 맞춤형 정책 필요
 - ⇒ 연소노인(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은 일자리 및 여가와 관련된 특화 사업 집중
 - ⇒ 초고령노인(만 86세 이상)은 맞춤형 의료 및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에 집중

□ 사각지대 노인(장애노인 및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 개발

-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령장애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재 수원시에는 장애노인과 관련된 정책 부재
- 구도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비중이 크고, 앞으로 독거노인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다양성을 파악한 맞춤형 대응전략 필요
 - ⇒ 전문적인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 강화
 - ⇒ 수원시 노인의 사회적 연결성 개선 및 노인 간 상호 작용 촉진을 위한 사업 개발

□ 특례시로서의 노인복지정책 비전 설정 및 지역형 특화사업 확대

-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자체사업의 비중 확대
- 수원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비전)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 설정
- 고령화사회에 대응을 위한 지역특화형 정책 개발 필요
 - ⇒ 수원형 노인복지정책 포함 사회서비스 지원 시스템 강화
 - ⇒ 수원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실행

□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 패러다임)를 반영한 통합적 관점의 정책 개발

- 노인복지정책의 지향점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⁹⁾’ 관련 정책 강조
- 세대통합형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지역사회의 환경변화를 통해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통, 도시계획, 여가, 돌봄 등의 통합적 관점 필요

9) "AIP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노인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이윤경 외, 2017)